

細刻明하여서 비록 小鐘이나마 優作이다. (身高 一三·四cm 上徑 六·〇cm 下徑 八·三cm 一〇·〇cm 口緣厚 〇·八cm) 出土地未詳으로서 日政時發見品이라 한다.

(2) 香寂庵小鐘 서울 蔣奎緒氏 所藏

慶南地方에서 出土(一九六七年頃)되어 大邱(考古堂)로 搬出된 것이 라 한다. 全高 十七cm 口徑 十一·七cm(厚 一·五cm) 上徑 七cm 龍鈕 高二·八cm 通式으로서 四乳廓(各九乳로서 乳帶는 三角斜線紋)이 있 고 上帶(單瓣伏蓮紋)와 下帶(雷文)의 鐘腹下面에는 飛天과 蓮花 紋 撞座 各二座가 交代로 배치되었다. 鐘頂에는 上帶와 接하여 立狀 蓮花紋帶가 돌러 있으며 甬筒과 雙龍이 있다. 銘文은 鐘體 兩飛天紋 사이에 三行으로 다음과 같이 陰刻되어 있다. (字徑約 一cm)

「香寂菴」 施主」 全道至」

鐘體에 높음은 아니보이며 黑色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火焰을 받은 때 문일 것이다. 形態가 完全하고 彫飾 또한 纖弱한데 年代는 麗末로 降下 되는 것으로 推定된다.

(註) 抽稿·高麗梵鐘의 新例(其三)(考古美術)二의 一 一九六一年 一月 에 소개한 (二) 善山出土無銘青銅小鐘의 鈕가 이와同一形式임.

襄陽 陳田寺址 三層石塔과 石造浮屠

鄭 永 鎬

江原道襄陽郡 降峴面所앞 岬—스 停留場에서 下車하여 西쪽으로 난 道 路로 七km쯤 가면 屯田里이고 이 部落에서 다시 溪流를 따라 約五百m을 다가면 「탑골」(塔谷)이라는 곳 앞 가운데 三層石塔 一基가 現存하며 다 시 溪谷을 따라 올라가면 六百m地點 小丘陵에 浮屠一基가 倒壞되어 있 다. 이 一帶가 寺址로서 洞里에서는 「陳田寺」터 라고 일컫는데 이 곳 에서 「陳田」銘의 瓦片도 蒐集된 바 있어 陳田寺址임에 틀림 없는 것 같고 東國輿地勝覽에 記錄이 없는 點으로 보아 廢寺된지는 오래인 것 같다.

第八卷 第六號 通卷八十三號

이 곳은 事變後 收復 地區이어서 實적의 調査된 바 없었는데 一九六五年度 三月 과 十二月 兩次에 걸쳐 筆者가 現地를 踏査한 바 있기에 簡 單히 紹介하려 한다

一、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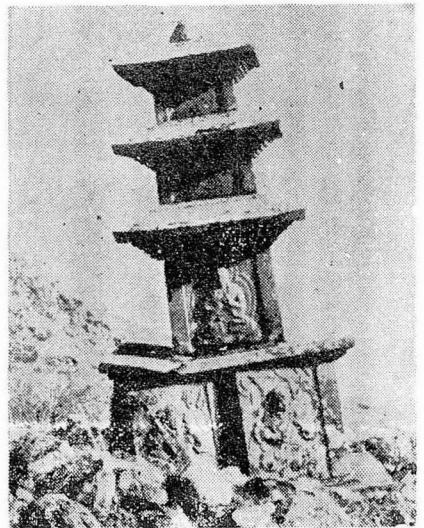
本時 南向寺利로

石塔 前方(南쪽)에

는 長 五〇m의 石築址(高三·四m)가 있고 北쪽으로는 法堂址에 民墓 가 있으며 周圍耕作地에는 瓦片이 散亂하다.

石塔은 新羅式一般型으로 二層基壇을 갖추고 있으며 相輪部는 露盤부 터 缺失되어 三層屋蓋上面에는 徑一〇cm 深一〇cm의 擦柱孔이 있을 뿐이 다. 現在 下基甲石까지 雜石에 埋沒되어 下層基壇全面的 調査는 困難하 여 東側만을 파 해쳐 보았다. 長大한 地臺石위에 下基를 놓았으며 面石 에는 兩隅柱가 있고 中央 一撐柱로 兩分하여 各區에 一座씩의 天衣가 流麗한 坐像을 陽刻하였는데 兩軀 共히 右肩偏袒의 衣文이 뚜렷하고 二重 頭身光이 있으며 蓮華座위에 安座하였다. 甲石은 六枚石으로 짐작되며 上面에는 四分圓의 물뎡과 角形받침으로 上基를 받고 있다. 上層基壇 面石은 一面二枚씩 全 八枚石으로 造立되었는데 兩隅柱가 있고 中央 一 撐柱로 兩分하여 八部衆象을 陽刻하였다. 甲石을 三枚石으로 構成되었 고 副椽이 整然하며 上面의 四分圓물뎡과 角形받침으로 塔身을 받고 있 다.

塔身은 各層마다 隅柱가 刻出되었고 初層에는 四方에 坐佛이 彫刻되었 는데 모두 仰蓮座에 結跏趺座하고 二重頭身光을 具備하였으며 螺髮에 肉髻가 큼직한 如來像으로서 그 圓滿한 相好라던가 衣文의 彫刻手法이 秀麗함이 比할데 없다 할 것이다. 屋蓋는 各層 五段씩의 받침이 있고 上



面二段的角形받침으로 그 위의 屋身을 받고 있으며 落水面이 平薄하고 轉角의 反轉도 輕快하다. 柱너에는 落水홈이 陰刻되었고 轉角 四隅에 風磬이 附着되었던 小圓孔이 二孔씩이 보이는데 이 石塔 全體의 均衡감형과 輕快한 屋蓋 및 基壇部와 初層塔身의 豊麗한 諸像 彫飾에 各層轉角에서 멩그런데는 風磬소리 마저 울렸을 當時 新羅代에는 壯觀이었으리라... 現高 5m의 이 石塔은 北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基壇部의 構造가 若干 錯亂되었는데 앞으로 補修作業이 必要할 것이라 생각된다. 實測値는 (cm) 基壇部가 下基面高 三二·五 下基甲石長 二四四 下基面幅 一三〇·五 下基甲石厚 一〇·九 上基面高 九一·五 上基面幅 一七八 上基甲石長 一九七 上基甲石厚 一四·五이며 塔身部는

	身高	身幅	隅柱幅	屋蓋長
第一層	七九·五	九〇	一一·五	一五四
第二層	三〇·五	八〇·五	一一	一三六·五
第三層	二六·五	六六·五	一〇·五	一一六·五

二、石造浮屠

原位置로 推定되는 바 이 丘陵에서 東쪽으로 前述한 三層石塔이 보이며 眼下 멀리 東海가 굽어 보이는 佳景無比한 眺望이 마치 感恩寺址를 連想케 한다. 이 位置에서 東南쪽은 斷崖를 이루고 西北쪽 넓은 耕作地는 옛 建物址로서 現在도 高三—四m의 長大한 石築址가 뚜렷하며 瓦片이 散亂한데 前記한 「陳田」銘 瓦片①도 이곳 耕作地에서 拾得한 것이다.

浮屠는 基壇部와 塔身部로 이루어졌는데 石塔의 通式인 方形二層基壇 위에 仰蓮의 一石을 놓고 八角身石과 屋蓋를 具備한 異例的인 樣式으로서 慶州石窟庵三層石塔과 通하는 新羅時代의 特殊形式이라 하겠다.

地臺石 上面에는 四分圓의 돌덩과 角形받침을 刻出하여 基壇을 받고 있는데 下基面石은 四枚로 構成되고 兩隅柱와 中央 一撐柱가 있으며 甲石도 四枚로서 上面에 돌덩과 角形받침으로 上基를 받았다. 上基面石亦是 四枚로 隅柱나 撐柱가 下基와 같으며 甲石은 二枚로 副像이 있고 上面에는 八角으로 四分圓의 돌덩과 角形받침이 있어 蓮華의 一石 一枚를

놓았다. 이 蓮華臺石의 下面은 角이 뚜렷치 않으나 上面은 八角의 角形과 돌덩으로 身石을 받고 있으며 十六瓣의 仰蓮內는 花瓣을 彫飾하였다. 八角身石에는 一面에 篆額을 마련하였을 뿐 銘文이나 彫飾 門扉 隅柱等의 表現이 全無하다. 八角屋蓋石 柱너에는 落水홈이 陰刻되었으며 落水面도 平薄하고 轉角의 反轉도 輕快하다 할 것이다. 相輪部材는 收拾이 없었는데 以外에 現在 各部材는 完存하여 完全 復原이 可能할 것으로 믿는다. 實測値(cm) : 下基面石長 一八七·四 下基甲石長 一九三·四 下基面石高 一九·八 下基甲石厚 一〇·六 上基面石長 二四四 上基面石高 七〇 上基甲石長 一四八·六 上基甲石厚 一二·六 蓮華의 一石 一邊長 四四·八 蓮華의 一石 一邊厚 一二·八 身石 一邊長 三三·四 屋蓋 一邊長 五三·八 身石 高 六七·九 轉角 八·八는 이다.

以上 兩塔에 對한 記錄은 若干 있으나 ② 그것으로는 不足하며 形態를 識別할 수 없다. 끝으로 이 遺物은... 三層石塔은 國寶로 浮屠는 寶物로 指定되었음을 附言한다.

註

① 再調時 收拾되어 同人申榮勳氏가 所藏하고 있다.

② 杉山信三著 「朝鮮의 石塔」 二〇八頁과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五四

二頁 參照

全羅北道 海岸 一帶의 先史遺蹟 (三)

崔 夢 龍

(c) 萬化洞支石墓

圖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이 發見된 大規模의 南方式 支石墓二基는 扶安郡 保安面 牛東里 萬化部落에 所在하고 있는 牛東精米所에서 南方으로 約 一五m 떨어진 곳 金在永氏 所有인 보리밭에 存在하고 있다. 筆者는 西쪽에 있는 것을 A, 反對쪽에 있는 것을 B라고 불여 說明하고자 한다.